

장남이 조 회장 지분 승계 유력... 상속세 1700억 넘을 듯

<조원태>

<17.87%>

후계구도 어떻게 되나

한진칼, 故 조양호 회장이 최대주주 상속세 마련 위해 배당 늘릴 가능성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승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후계구도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8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진칼의 지분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17.87%로 최대주주다. 이어 장남인 조원태(2.34%), 장녀 조현아(2.31%), 차녀 조현민(2.3%) 등 조 회장 자녀들이 총 6.9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때문에 한진칼 지분이 누구에게 넘어갈 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 장남이 승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생전에 공증받은 유서가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삼남매의 지분이 각각 2% 수준으로 비등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유산 상속을 위한 '형제의 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서울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문제는 상속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조 회장의 유가증권 지분가치는 약 3454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 또 부동산 등 기타자산 상속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주가 강세와 부동산 상속 등을 감안하면 1700억원대 상속세는 최소

수준이 될 것이라 시국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한진칼의 배당을 늘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총수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향후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천문학적 상속세를 해결하더라도 조 사장 등 삼남매가 한진칼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겠다고 해도 상속세율 50%를 감안할 때 삼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20.03%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성부 펀드(KCGI)는 지분을 무섭게 모으고 있다. KCGI가 최근 공시한 바에 따르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은 13.47%다. 최대주주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조원태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사진이 모조리 물갈이되면서 실질적 경영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은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한진칼은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총수 일가가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치저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양호·수호·남호 비운의 3형제... 정호만 건재

시련의 한진家 형제들

이사직 상실·연임 실패 등 형제들 역경 잇따라 조 사장 승계 가속화 전망... 부친과 경영 이끌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0세의 일기로 사망하면서 향후 한진가의 형제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향년 70세의 나이에 숙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임종은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949년 3월 인천에서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1974년 미주지역본부 과장으로 한진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2002년 부친이 타계한 후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부친이 세운 그룹 전체를 맡지는 못했다. 조 회장이 그룹의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다. 한진가(家) '왕자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과정에서 한진그룹은 차남 조남호의 한진중공업, 3남 조수호의 한진해운, 4남 조정호의 메리츠금융으로 나뉘었다.

3남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제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최 회장이 승리했지만, 한진해운이 급격하게 기울자 2013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7년 파산했다.

한진 일가의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조양호 회장은 사망 수일 전인 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주주의 반대로 대표이사(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한항공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다. 조 회장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장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차남),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4남) 등 한진가 3형제.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은 2006년 타계했다. /뉴스시

이들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남영빌딩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주주총회에서는 조남호 회장이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진중공업 이사회는 조남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지 않았다. 경영 실패에 따른 결과였다. 조 회장은 2013년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지만, 올해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KDB산업은행 등 국내외 채권단은 이달 초 한진중공업에 대한 6874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확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는 기존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던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됐다.

조 회장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 경영악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은 약 2조원을 들여 필리핀 수빅크만에 조선소를 짓고 중대형 상선을 주로 건조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수빅조선소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1월 현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회사 수빅조선소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모회사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회사에 빚만 남는 상태)에 빠져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메리츠중공업권을 포함해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지주의 자산총계는 2011년 출범 당시 12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52조원으로 4배 이상 불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최근 주요 일지

- 2014년
 - 12월 5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명공회향 사건 발생
- 2018
 - 4월 12일 언론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제기
 - 19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의혹 논란
 - 5월 30일 국민연금,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 행위에 대해 우려 표명, 주주권 적극적 행사 결정
- 2019
 - 2월 1일 국민연금,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 3월 5일 대한항공 이사회, 조양호 회장 연임안 주주총회 상정 확정
 - 26일 해외 공적 연기금 3곳, 조 회장 재선임 안전 반대 의견 표명
 - 26일 국민연금, 조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결정
 -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실패
 - 4월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미국서 폐질환으로 별세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 재판 '공소기각' 결정 예상. 이명희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예상. /정연우 기자 ywj964@

특히 메리츠중공업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을 2년 연속 다시 썼다. 메리츠중공업권을 포함해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지주의 자산총계는 2011년 출범 당시 12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52조원으로 4배 이상 불었다. 5년 전인 2013년(516억원)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8배 이상 불었다. 자기자본은 3조4731억원으로 같은 기간 67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조양호 회장 별세에 일가 수사·재판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자기 별세하면서 조 회장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일제히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던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을 거쳐 재판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당초 서울남부지법은 8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이상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기내면세품과 항공기 부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조원태씨 등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등이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9일)에 진행될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45)에 대한 재판부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을 당할 경우,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판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 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예정인 관세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아직 연기여부가 아직은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장례식이 끝난 이후여서 연기신청서를 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